

ICAS 정책이슈&진단 | 18-03

#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건강·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책과제

## CONTENTS

I . 베이비부머와  
건강 · 활동적 노화

II . 베이비부머의  
건강 · 활동적 노화 관련  
조사결과

III . 논의 및 정책과제

<b>연구명</b>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 조사
<b>연구자</b>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권미애(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팀장)
<b>작성자</b>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ICAS 정책이슈&진단은 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http://www.inlife.or.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 베이비부머와 건강·활동적 노화 관련 조사결과

- 현재 사회활동 참여보다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희망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음주를 제외한 금연, 운동, 병원방문, 정기검진에서 비교적 건강행태를 보임.
- 노년기 주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34.3%), 근로사업소득(34.1%), 자산소득(28.9%), 사적 이전소득(1.9%), 기타(0.8%)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71.7%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미가입자 16.8%, 가입 후 미납입자 11.5%였음.

### ○ 논의 및 정책적 제언

구분	내용
정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적 노화에 입각한 장기적 관점의 정부 정책기조 확대</li> <li>■ 노년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강화</li> <li>■ 바른 돌봄, 미래를 위한 건강보험 준비</li> </ul>
인천광역시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적인 예비노인세대 정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li> <li>■ 예비노인세대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 지원</li> </ul>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환경 진단 및 베이비붐 세대의 트랜드 분석</li> <li>■ 개별화된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li> <li>■ Two-track의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li> <li>■ 욕구(Needs)에 근거한 노인 사회참여 기회 및 기반 마련</li> <li>■ 베이비부머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li> </ul>

## 1. 베이비부머와 건강·활동적 노화

-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보호의 대상이며, 은퇴 이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여가를 보내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재정위기 등 고령화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보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남.
- 이러한 패러다임은 활동적 노화에서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건강 노화로 이어지고 있고,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모든 생활영역이 포함되는 활동적 노화와 건강 노화가 강조되고 있음.
- 2002년 및 2015년의 WHO 보고서와 2012년의 유럽위원회 선언을 통해 정책 프레임으로써 활동적 노화와 건강노화가 구체화되었음.
- 활동적 노화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생활보장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8개의 결정요인과 9개의 행동강령이 제시됨.
  - 8개의 결정요인: 성별, 문화, 의료 및 사회서비스, 행동에 관한 결정요인, 개인적 결정요인, 물리적 환경, 사회적 결정요인, 경제적 결정요인
  - 9개의 행동강령

구분	내용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의 기회 제공</li><li>■ 개별적인 욕구, 선호, 능력에 따른 경제 발전 활동, 공식적·비공식적 근로 및 자원봉사활동에의 활동적 참여 가능성 및 고려</li><li>■ 가족과 지역사회참여 촉진</li><li>■ 돌봄제공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li></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만성질환과 조기사망 증가에 따른 부담의 감소와 예방</li><li>■ 생애과정에서 주요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감소와 건강 보호 요인 증진</li><li>■ 남녀의 욕구와 권리를 다루는 양질의 이용 및 접근 가능한 연령 친화적인 건강·사회서비스의 지속적 개발</li></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재정적·신체적으로 안전한 권리 및 욕구를 다룸으로써 노인의 보호, 안전, 존엄을 증진</li><li>■ 여성 노인의 안전할 권리와 욕구의 불평등 감소</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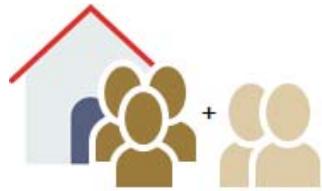


- 건강 노화란 “노년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능적 건강을 발전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4개의 핵심주제와 10개의 주제가 제시되었음.
  - 4개의 핵심주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건강불평등, 성별, 비주류집단
  - 10가지 주제: 은퇴와 조기은퇴, 사회적 자본, 정신건강, 환경, 영양, 신체활동, 부상 예방, 약물오남용, 의약품 사용 및 관련 문제, 예방적 의료서비스
- 활동적 노화와 건강 노화에서 제시된 요인을 정리하면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활동(근로 포함), 건강(의료 포함), 주거, 지역사회인식, 경제적 사항 등이 되며,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노후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활동적 노화와 건강 노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결과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 베이비부머의 건강 · 활동적 노화 관련 조사결과

- 인천시 베이비부머에 대한 건강 · 활동적 노화 관련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패러다임에서 제시된 요인을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 가족, 사회적 활동, 건강, 근로 및 경제적 사항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함.
- 인천시 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 사이 출생자) 1,9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은 남성 50.2%, 여성 49.8%였으며, 이 중 전기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 는 52.2%, 후기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자)는 47.8%였음.
- 응답자의 과반수는 고졸(51.7%)이었으며 전문대졸 이상도 41.5%에 달하였음.
- 대부분 혼인 중(85.8%)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58.6%는 생계책임자인 가구주였음.
- 78.1%는 자가에 거주하였으며, 전세 17.0%, 월세 4.5%, 기타 0.4%였음.
- 동거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으로 세대(世代)를 구분해보면, 3세대인 베이비부머가 50.4%로 가장 많았음.

- 평균 동거가족원수는 3.3명이었고, 비동거 가족원수는 2.4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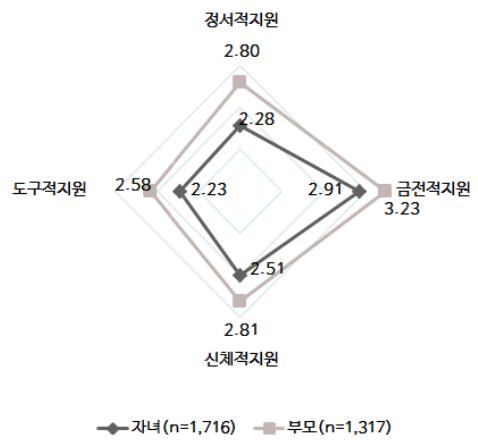
- 사회적 지지는 친구 및 이웃(2.91점), 자녀(2.90점), 배우자(2.79점)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범위: 4점/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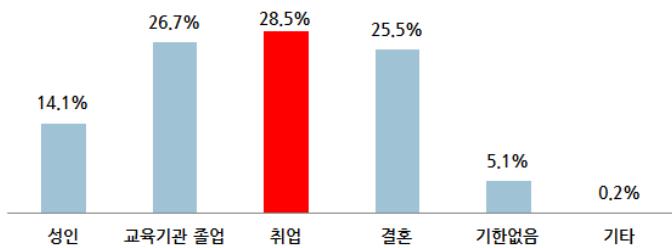
- 부모 및 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각 대상에 대한 지원 부담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지원영역에서 자녀보다 부모에 대한 지원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집단에 대한 지원 유형 가운데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담(부모: 3.23점, 자녀: 2.91점)을 다른 지원 유형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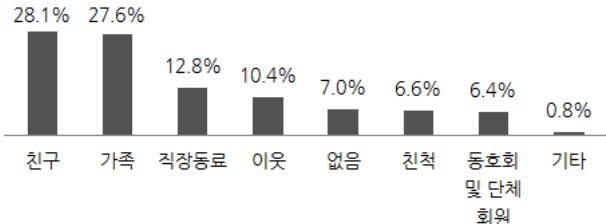


범위: 5점/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부담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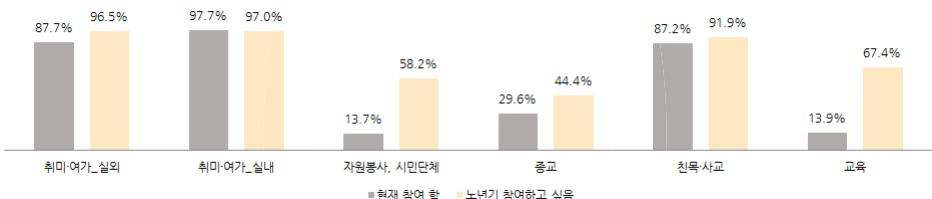
- 자녀를 둔 베이비부머 가운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28.5%)’ 자녀부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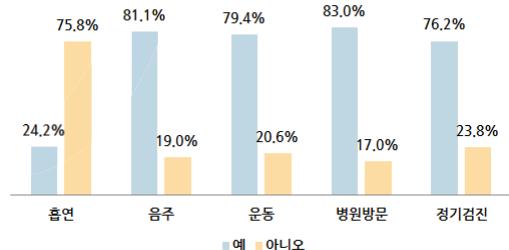
- 1~3순위의 응답을 종합하여 본 사적인 친교활동 집단은 친구(28.1%), 가족(27.6%), 직장동료(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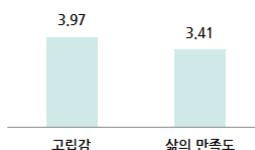
- 베이비부머는 실내 취미·여가활동(97.7%), 실외 취미·여가활동(87.7%), 친목·사회 활동(87.2%)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종교활동(29.6%), 교육활동(13.9%),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13.7%)의 참여율은 낮았음.
-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의사는 실내 취미·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현재 참여율보다 높았음.



- 음주하는 비율은 81.1%로, 건강위험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흡연(75.8%)’, ‘운동함(79.4%)’, ‘병원방문(83.0%)’, ‘정기검진 받음(76.2%)’에서 비교적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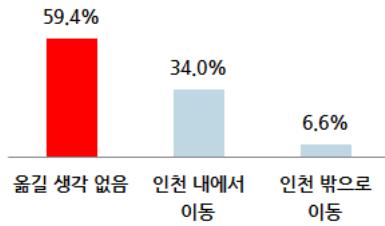


- 고립감 및 삶의 만족도의 점수는 중간보다 높아 비교적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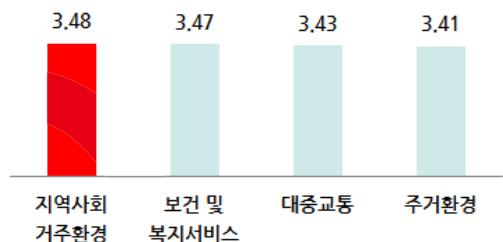


범위: 5점/점수가 낮을수록 고립되고 만족이 낮음

- 응답자는 평균 19.25년을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중 59.4%는 은퇴 후나 노년기에 현 거주지에 계속 정주할 의사를 밝힘. 34.0%는 인천시 내 다른 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있었으며, 6.6%는 인천시 외 다른 시·도로 이사하겠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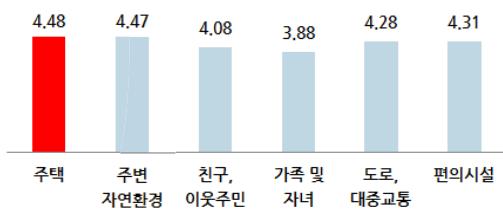


- WHO에서 제안한 항목을 중심으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거주환경에 대한 만족(3.48점)'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3.41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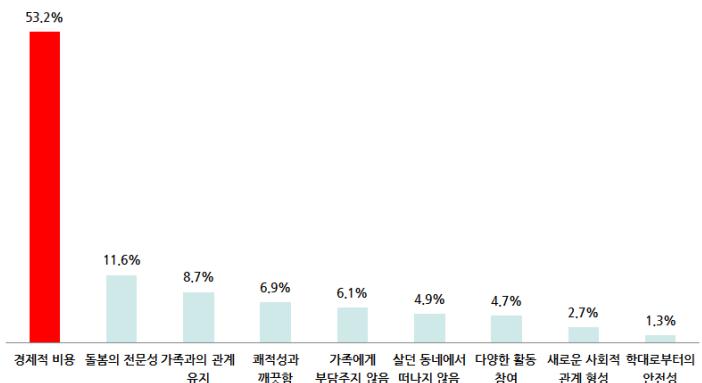


범위: 5점 / 점수가 높을수록 고령친화적이라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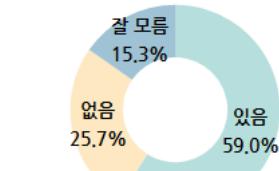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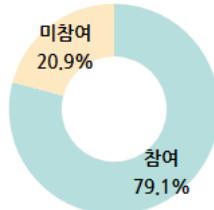
- 베이비부머는 노년기 주거환경 중 '주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응답하였고, '친구 및 이웃주민', '가족 및 자녀'와 같이 대인관계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음.



-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노년기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과반수가 '경제적 비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돌봄의 전문성(11.6%)', '가족과의 관계 유지(8.7%)' 등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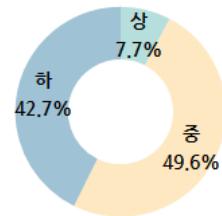
-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79.1%였으며,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베이비부머 비율은 59.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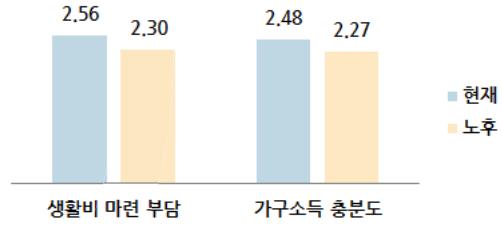
&lt;현재 경제활동 참여여부&gt;

&lt;노년기 경제활동 참여희망여부&gt;

- 평균 가구소득은 450.27만원이었으며, 응답자는 49.6%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간’이라 응답하였으나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42.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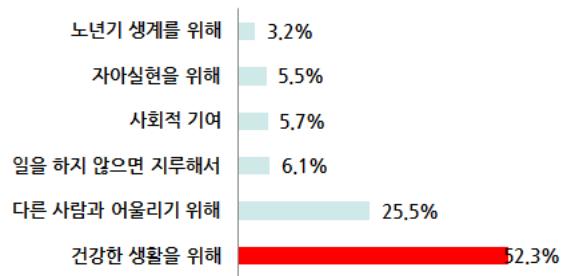


- 현재 및 노후의 생활비 마련 부담과 가구소득 충분도를 알아본 결과, 중간 점수보다 부담도를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소득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보다 노후의 생활비 마련 부담과 가구소득 충분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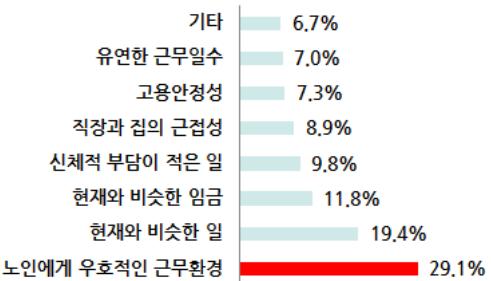


범위: 5점 / 점수가 낮을수록 부담이 크고 불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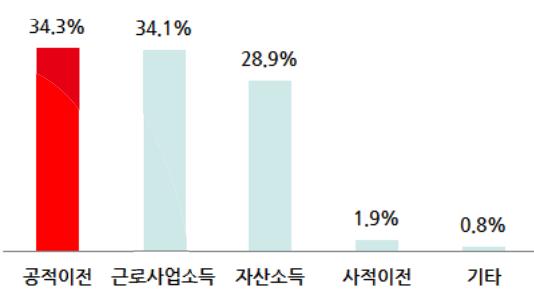
- 노년기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52.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뛰어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25.5%)’, ‘일을 하지 않으면 지루해서(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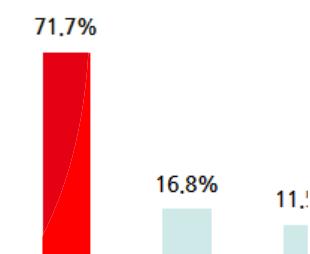
- 노년기 중요한 근로조건으로는 ‘노인에게 우호적인 근무환경(29.1%)’이 1순위였으며, ‘현재와 비슷한 일(19.4%)’, ‘현재와 비슷한 임금(11.8%)’에 대한 선호 또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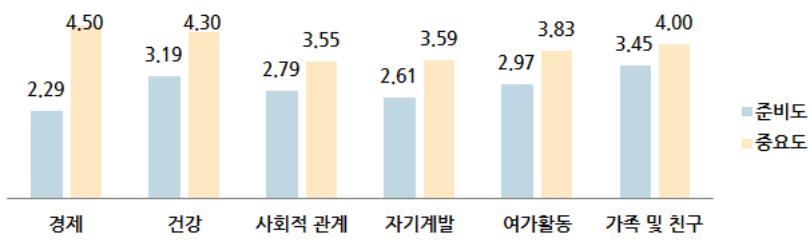
- 노년기 주 소득원으로 ‘공적이전소득(34.3%)’, ‘근로사업소득(34.1%)’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자산소득(28.9%)’ 또한 높은 편이었음.
- 자녀 등을 통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기대는 낮았음(1.9%)



- 응답자의 71.7%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11.5%는 가입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음. 16.8%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



- 베이비부머는 노후준비 영역 중 ‘경제적 준비’를 가장 중요하나 가장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및 친구관계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었음.



범위: 5점 / 점수가 높을수록 준비를 잘하고 중요함



### 3. 논의 및 정책과제

#### 1) 정부 차원

##### (1) 활동적 노화에 입각한 장기적 관점의 정부 정책기조 확대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베이비부머는 ‘예비노인세대’, 또는 ‘신중년’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인구집단으로 그간 노인세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저출산 · 고령사회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세대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 출발선상에서 노인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구집단으로 삼는다면, 활동적 노화 달성을 적절한 정책기조로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주요 정부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인생3모작 지원, 보건복지부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 등
-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형성하거나, 제도 및 지원 체계구축은 미흡한데, 고용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책반경을 넓혀야 함.
-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만을 대응하기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의 기조확립이 필요함.

##### (2)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강화

- 본 조사결과에서 보면, 71.7%의 응답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11.5%는 가입 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16.5%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
- 이러한 결과는 미가입자를 발굴하여 추가 가입을 확대하고, 미불입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방해요소를 제거하여 불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 또한 지금부터 공적연금을 준비하더라도 공적연금 납부 기간이 길지 않거나 연금액이 불충분한 베이비부머를 위하여 노인기초연금의 범위와 금액인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월 84만 원 공제, 재산 최대 월 24~45만 원 공제, 금융재산 최대 월 6.6만 원 등을 차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단독가구는 최대 월 25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0만 원을 수령함.
    -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인 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거나 노령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노인에게 노년기 소득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3) 바른 돌봄, 미래를 위한 건강보험 준비

- 베이비부머는 음주를 제외하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구체적인 건강관련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유병률은 높아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시간 역시 길어지므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과 비용 또한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임.
- 현재 제공 중인 정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치매예방교실 등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노년기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정신 및 심리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서의 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노년기 건강에서 중요한 전달체계인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 요양시설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에 보험기금 고갈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이 요구됨.



## 2) 인천광역시 차원

### (1) 선제적인 예비노인세대 정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인천시는 예비노인세대 위한 지원 기관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을 시작하였으나, 인구 중 많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는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인천시 행정체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예비노인세대 지원에 대한 주요 전달체계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이며, 현재 여성가족국 내 노인정책과에서 센터 운영의 전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정책과 내부 담당업무 분류는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노인지원, 장사문화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에서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중장년 지원 관련 센터가 마련된 인천시와 부천시, 대전시, 충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 관련 부서(국,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가 마련된 지역은 서울시 및 경기도임.
- 인천시의 경우 인구수를 고려할 때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 될 수 있음.
  - 인천시의 노인인구는 11.8%로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낮지만,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울산과 대구 다음으로 높은 편임.
  -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증가될 전망으로, 인천시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에서 베이비부머의 노년맞이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변화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서울시의 50+센터의 경우, 후발로 설립된 베이비부머 관련 지원 기관의 모델이 되었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또한 연구와 사업이 결합되어 기존에 볼 수 없던 베이비부머 관련 지원 기관으로 향후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 (2) 예비노인세대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 지원

-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의제를 끌어내는 조사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기반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년 지원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의 환경적 지원이 필요함.
- 첫째, 지역조사 및 연구가 수반되기 위해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지역 통계 및 조사에 대한 DB가 충분하거나 지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해 제공된다 하더라도 세부 주제 및 대상, 지역 등 특정 현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사가 수행되고 진행되고 결과를 적절하게 분석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지역조사에 대한 투자와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둘째,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센터는 인천시민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접근성, 이용에 대한 편리성, 다양한 공간 구성 등 위치와 환경 구성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수가 많은 지역 내 위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부근에 위치하는 등 이용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환경일수록 참여도가 높아질 것임.
- 셋째,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가 요구됨.
  - 현재 센터는 연구팀과 2개의 사업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획 및 행정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 구성이 미비한 상태임.
  -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조직 구성은 정책현장의 효과성과 확산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임.



### 3)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차원

#### (1) 지역환경 진단 및 베이비붐 세대의 트랜드 분석

-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연령 구간을 보면 1955년부터 1974년인데, 사회문화적 경험은 세대에 따라 다르고, 그 영향 또한 세대 및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보다 촘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구분과 일자리, 여가,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트랜드 분석이 필요함.
  - 경제와 복지, 건강에 집중되는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나 이와 함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또한 균형을 이뤄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교육과 상담, 일자리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기존 기관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재취업, 재무, 사회공헌 등을 벗어나 여가, 문화활동, 패션, 의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트랜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 (2) 개별화된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

- 사회가 복잡해지고 욕구가 개별화될수록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음.
-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욕구를 서비스 현장과 잘 매칭(Matching)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일자리 영역을 예를 들어보면, 지역환경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과 기업의 수요 및 업무 성격, 기능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A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B지역에 a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A지역에 a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입장에서 A지역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접근 또한 요구됨.

- 따라서 지역별, 영역별, 주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으나 비영리 또는 사적 전달체계 내에서의 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에 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관이 함께하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베이비부머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맵(Services map)을 작성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3) Two-track의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 베이비부머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마지막 세대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결과, 3세대의 베이비부머 구성이 가장 많아, 소위 '긴 세대'로서 베이비부머가 가진 이중부담을 보여줌.
- 반면 베이비부머는 자가소유의 비율이 높고, 건강행태를 보여 널리 알려진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하며, 건강·활동적 노화에서 보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특성을 드러냄.
-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가 이중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한편,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여가 중심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개인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양면성을 가진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이해하여 베이비부머 개인에게 경제적 측면과 여가의 측면이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4) 욕구(Needs)에 근거한 노인 사회참여 기회 및 기반 마련

- 활동적 노화의 측면에서 사회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이 활동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제시되었음.
- 현재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체계 내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실외 취미 · 여가활동, 실내 · 취미 여가활동, 친목 · 사교활동을 더 추구하고 있었음.
- 노년기가 되었을 때 비공식적 체계 내의 활동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았으나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 비율이 증가하였음.
- 인천시는 7개 도시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에 비하여 적게 설치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시설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함.
-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향후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노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7대 도시 중 중간수준의 현황을 가지고 있어, 교육욕구나 높은 베이비부머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제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Age[U3A])이나 독일의 시민대학 (Volkshochschule)와 같이 노년기를 포함한 성인에게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같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고령화가 진행된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낮고, 인천시 또한 그러함.
  - 베이비부머가 실제 노인이 되었을 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음.

---

## (5) 베이비부머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 본 연구결과,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노년기에도 과반수가 경제활동 참여의사를 밝힘.
- 또한 노년기 주 소득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나, 근로사업소득 또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소득창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 중 근로소득은 전일제(full time) 일자리를 요하며, 이에 취업하기 위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 노인은 경제활동인구의 근로능력보다 신체적·기능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가정하여, 현재의 노인일자리보다는 높은 기능수준을 요하지만 고도의 기능수준을 요하는 일자리와는 차이를 두는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필요함.
  - 단순 노동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보다 세분화하고 고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사례 중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의 “Back to Work 50+” 프로젝트와 스위스의 “Tandem 50 plus”는 적극적인 근로활동 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Back to work 50+는 취업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임,
  - Tandem 50 plus는 스위스 지자체별로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교육, 취업, 고용안정까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임,
  - 두 프로젝트 모두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취업훈련을 도움.



ICAS 정책이슈&진단 (2018-03)

##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건강·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책과제**

---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인쇄처 : 아이시스컴(032-201-2044)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있음

